

會衆에呼訴하는 오大將

면을 회를었던 것이다. 구세군은 저들 노동자 농민의 외식주(衣食住) 문제를 해결하는 노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다.

군백이 사령관의 예언과 맞닿지라도 야마무라 일리가 있는 것이다

아세야에 신포자들을 파견하러 온 아세야의 동맹에서 이 것이야

사태를 점치고 있는데도 어쨌든 구세사업에 있어서는 이 혁명만으로도 충분하다

모의 무기미한 음조임이 현저하다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는 十九世紀 후반 시대의 精神으로 사회를 재조직 하리
군 활동에 대하여 장간
기 하리한다. 나는 구세군
으로 여러날 토론에서 전차
라니 순회한 사람이 내
찾아와서 나는 구세군을 잘
알아있는 것이 구세군인
고하였다. 여러 술을
에 배운 것이 새것이었기
나고 매우 새
것이다. 우리는 세상
형제간 사랑이 있
는 것이 세상 정권과
정착으로 사회를 재조직 하리
라고는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간에도 동산전영 국가의
에는 우리의 선명한 사관들이
회사에 매워있는 형제간
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정권과 사랑이 있

아니다.
군의 이익과 남매는 산악적
전후하는 시절로 인류는
와 평등을 생존권을 찾고
때였다. 그 아우성은
리, 울란사, 영국, 미국, 할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전
스도의 평정으로 죄와 악에
때운 인류와 사회를 해방시
리는 평정이다.
우리는 세계 八十九개국에포
진하고 八十一개방으로 一六
九〇三소대와 본대에 나누어
七六八개 사회사업장파 八七六

聖經要理問答
(13)

總會治理局提供

문
어떻게 하여야 주의 성찬
을 합당하게 받나뇨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받
는 자는 온 스사로 삼피 주
의 음을 깨달라 그를 받
아 믿음으로 먹는 것뿐 죄
를 누르는 것과는 사뭇 달
라니 무릇 주의 맛을 맛
함
어아 말거나 혹 합당치
않게 와서 받으면 두렵건대
죄를 먹고 마심이니라
고전十一〇廿八廿九
고후十三〇五
고전十一〇卅一、十〇十六
十七、五〇七、八
九十八
기도가 무익이요

韓國教會發展의 史的考察(7)

金良善牧

[illegible]

共產主義는 絶緣

NCCL를 禮訪한 金女史



溫順(溫順) 감운순 여사

는 지난 일십 일본기독교 협회 사수실을 방문하여 한국 회남인 구제위원장 수기하랑 가 도1씨에게 담례를 하였다. 김은순씨는 당면 문제에 대 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일본 임의 반성과 인식을 요망하였 다. 「한국인이 매일감정은 일본 다.」

있을듯하나 六、二五동란후에 공산주의자 들의 실태를 모르고 있어 는 손잡으려는 생각조차 지고 마렸다. 김씨는 참은 적실자자 호루희의에 참사하기 위하여 지난 四월十九일에 도일하였는 데 五월 중순에 귀국하리라한

한국신자는 믿는 처할 부러
신앙상 유익된 일이라면 아끼
지 않고 값을 내었다.
한국교인은 성경책을 가장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 그것은
다른 나라 신자들과 같이 예배
당에 들어올 성경을 쓰지 않고
나 자신이 중한 값을 내고 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예배당을 사랑
하고 보호하는 이유는 우리의
소박 돈으로 그것을 지은 때문
이다. 우리의 힘으로 지은 예
배당이기에 때문에 수리비가 얼
마가 들어도 줄겨 낸다. 우리의
힘으로 교역자를 세워주어 때
론 자기의 영의 지도자로 막
힘 없이 신뢰되고 지도를 받
는다. 우리 예배당이 다른 예
배당만 못하면 어떻게 하든
지 증축을 하든지 새로 짓는
지 한다. 예배당 건축에 이러

한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신
약 제二교회들 지을 때에 한
국에서 제一크로 아울러 다운
예배당을 짓기로 작정하고 힘
쓴결과 그대로 이루어 졌다.
얼마후 대구 제一교회가 한국
에서 제一큰 예배당을 짓기로
작정하고 협선결과 마침내 신
약 제二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를 지었다. 또 얼마 후에
선천 남교회가 제一큰교회를
짓기로 작정하고 협선 결과
그야말로 초중대급(超重大級)
의三百八十坪이만 장대한 예배
당의 첫 번째 성공하였다. 해방
전까지는 한국 안에서 가장 큰
교회이었다. 그러나 해방후에
서울 영광교회가 선천교회에
지지 않았다고. 一億二千円에
해서도 四百坪 예배당을 건축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교회는
실로 동양제一の 대교회이다.

신경에 이르기는 무척 만주
하여간 부성으로 부터 만주
신약에 빠르기까지 수천의
장대한 예배당들은 한국교회의
강력한 봉헌정신을 충분히 나
타내고 있다. 그 예배당 들을
기거 위하여 애용하던 시
사람이 많은것은 물론 단 한
사람이 없는 심을 마친 사람
도 많았다. 이 봉헌의 정신이
아 말로 한국교회를 마침내
금일의 발전에서 크게 하였다
우리는 이상에서 한국교회발
전의 역사적 사실과 원인을
삼각히 자세히 논의하였다.
이로서 우리는 과거를 감사하
는 동시에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할 것이다.

달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원하는바
 를 하나님께 구하며 그듯
 과 합한것을 구하며 죄를
 자복하며 은혜를 감사하게
 한다 하는것이니라.
 시 107, 61, 218
 요 150, 150
 요 16, 33, 시 32, 20
 五, 단 9, 四
 빌 4, 06
 九十九

달 하나님 의 기도하는
 것들 가라치시라 하사 무

달 하나님 의 말씀이 다 우리
 의 기도하는것을 가라치며
 나 특별히 가라치신 법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자애게
 가라치신 기도나 흔히 이
 라기를 주의 기도라 하나
 니라.
 요 150, 14, 마 6, 9, 1
 13, 로마 8, 26

百

문 주기도의 첫 말씀이 우리
 에게 무엇을 가라치시뇨.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능하고 보호 하기줄
예비한 아박지에게 가는것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한
대 공경 하는듯하든 듣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것을 가르쳐요 또 우
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부
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 하라고 가르
친 것이니라.

마六〇九, 로마八〇十五
누가 十二〇, 행十二〇
五, 딤후二〇十二

百一

말, 첫 기도는 곧 이들을 거
룩하게 하옵소서 한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른 사람을 도오사 우리
로 하여금 자기들 나라이
신 모든것으로 그를 영화
롭게 하고 또 천히 영화
를 위하여 만물을 쓰시옵
소서 하는 기도니라.

시六十七〇二, 三,
시八十三〇
百二

말, 둘째 기도는 나라이 임하
옵소서 한것이니 이는
담의 나라의 멸망한바 되
고 온데의 나라이 전보로하
여 우리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드러가 향
상 있게하고 또 영화의
나라이 급히 임하옵소서고
기도 하는 것이니라.

시八十八〇一, 一十二〇三
十一, 욥十二〇, 十一
살후三〇一, 로마十〇一
요十七〇九, 二十
막二十二〇二十

문, 우리가 들찌 기도예 무엇

兒	童
說	教

어머니의 사랑

本文요한十九장 一五 一七

물론 안으로 접어지듯이
가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누구냐? 권애기 아
냐?」 하고 안에서 어머니
뒤로 나오드랍니다. 이때
이 다라나는 한쪽의 팔은
아도 말고도 무하고 어머니의
팔수없이서 자녀에게
어긋나게

나 앉으니까 후 물타서
잘못 생각하시는적이
후 천성이 그래서 심수하는
수가 있겠지요. 후 사정이
어긋나게

마음은 아파게하는데가 얼마
나 많읍니까.

[illegible]

성령의 손으로 피사는 사함도 얻을
것이다. 성령에는 역사하러 민중
우에 다스리실 이 사신것을
구제적으로 구원하가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아 우리민족
에게도 하나님아 심을 믿음과
동시에 겸손히 그의 뜻을 받들
려한다. 고한

祝基督申報發展

伸繼・卷繼・ウエス手袋
伸ウエス・雜布・晒原料
洗皮・古物商

川地商店

主 金 憲 榮

大垣市室町七丁目
電話八九番

清酢都散賣
古鐵商
小型運送業

東村商店

主 李愚斑

大垣市新町
一丁目三番地

ドライクリーニング
洗張ゆのし・洗濯一切
技術優秀・親切迅速

信光舎

主 金 炳 淇

岐阜市加納町九丁目
電話 二九六番

神學博士 張利郁 筆
法學博士 張利郁 訳

[illegible]

羲의太陽이떠올라

머리 돌리고 울타른 연초록
 애기의 웃음같은 새 색이
 밤새에 밤새에 훨씬
 땅속에 꿈을 그리던
 비페도
 새 옷을
 오오
 저기서
 신록의
 울결이
 생명력의 파
 기쁜 곡조로
 소리치나니
 땀을 추추
 지평선상에

어
머
니
와
애
기

귀여운 육하는 웃음을 띠고
가만히 앞질러 아주먼저에 놀
러갔다.

「유치원에서는 낮이면 풀러만
나.」

「오빠는 육회를 째우고 있다
니.」

「호자. 오나.」

「유치원에
먹는다. 찬반은
유치원에
먹는다.」

「유치원에서는 낮이면 풀러만
나.」

「오빠는 육회를 째우고 있다
니.」

「호자. 오나.」

「유치원에
먹는다. 찬반은
유치원에
먹는다.」

中國共產主義外

基督教 (4)

中國의 基督教의 将来

어떤교회 지도자	물론	가득	가	아는	현대적	국가	가	퍼져
교가 결국	발상되고	만다는	는	완전한	선전이	다	면지	도
사실을 입증하려	하지	않는때	그	충만한	감시선	발아	본	일
이것은 한갓	속행의	고백인것	은	없다.	지도자들은	감금	후	
만용 신비적인	런지는	물라도	은	추방되었고	해의에서와	대		
현실적인	물론	아니다.	교회는	죽어서	발아오는	계제적지원은		
지금간	시대에	있어서도	종종	곡의저	버렸고	또	모든	사용
한것	있었다.	있으나	마음	일들은	한가들	한가들	하렴	
배	승리할것	사실이다.	그러	도	나오지	않을수	없도	된
나	그들은	최종물	들고	끝라	정서아래	있어	중국어	의
달린사람	들이	오늘	우리	교의	정려는	참으로	처적하	다

東京通信
(1)

田榮澤

된 이상주의자들은 그 명료한 현실사정을 우연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해답은 점점 난감하여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각 당사자의 처우부터 활발히 움직이지 못한 그 골육한 유동파적 이상파와 로서야의 그 사악한 정치와의 대조적 차이가 점점 명확 하여 지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인식하지 못한 한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즉 가장 우월한 우주적정의의 표상으로서도 도덕적부족이 전면적으로 무시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부터 국제적 혹은 국가적 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모형

한번 찾아가서 하루밤을 밝히면서라도 이야기나 설거지 하고 떠나올려고 버려진 것이 그렇게 노상에서 만나서 총총하게 작별하고 오니 서운한 생각을 지금도 금할 길이 없소이다.

「아저씨 가실때면 저하구 같이 가십시오. 제가 모시고 가지요」하고 천천히는 사람으로 모회사사장인 박군이 비행기표들 사주어서 약二三일후에나 떠날것을 갑자기 오게되었지요 「내일 아침출발이 수영(水營)으로 나간다니 지금 작별하시

부산 있는 친구들이나 기록

신 형과 동행이가 되었으면

하야 이런 때에야말로 시인이

날 야독한 공중에 떠서 바다 위를 산회한 달리나 내 몸과 마음은 아조 편안합니다. 근대 과학의 산물인 비행기를 믿고 그것을 짓게하시고 공중에도 움직이시는 아버지들 믿기 때 문입니다. 예시인이 「내가 하늘에 올라 갈지라도 거기에서요」

새벽날개들 치며 바다 끝에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음운은이 나를 놓드시 나이다.

한 경건한 심정을 짐작할듯

基督教의 發展할 照

共產治下에隘路는 있으나

부
론
카
氏
談

共產治下宣教師救出努力

美國NCC真相發表

악
중공치하에 억류되여
으로 선교사를 투옥하고 악

주의 앞채바라는 중언을 하
여야 하게되어있다.
미국에서는 신교 三十여파의
대교로 N O O 내에서 중교선교
구술사업에 노력하고 있
화판이 교회당으로 된다는

西陣織有線無線ビロート
(四本ベルベット)
韓服 其他
生産都賣販賣 岩 本 工 場
経営主 李 鐘 洵
京都市上京區大宮通蘆山寺上ル
西入在横町288 電話西陣(4)5852番

祝基督申報發展

編集 塚本虎二・濟藤茂

キリスト教常識

毎月十五日發行 A5二〇頁
定價一冊二〇圓（十共）

六冊前金 百二十圓
十二冊前金 二百四十圓

但し第四十二号迄は一冊十圓
（尚在社の旧号は第六・十三・
十四・十六・十七〇号丈でその他
は品切です。

発行所 東京都中野区
本町通五ノ三二一

キリスト教常識社
振替東京二八九三三番